

2022년 8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9. 19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8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7.1% 증가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누적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8월 수출이 둔화하여 무역수지는 약 7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00달러 이상 감소

○ (수입) 8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0.3% 증가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의 누적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누적수입량은 동광석 및 정광을 제외한 8개 품목 모두 감소
- 중국 일부지역 폭염 지속에 따른 에어컨 전력 수요 증가 등 계절적 요인으로 8월 석탄 및 갈탄의 수입 수량 및 금액은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

1 수출입 동향

- 중국의 8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7.1% 증가한 3,149억 2천만 달러(약 433조 원), 수입액은 0.3% 증가한 2,355억 3천만 달러(약 324조 원), 무역수지는 793억 9천만 달러(약 109조 원) 흑자를 기록
 - 8월 수출증가율은 3개월 만에 한 자릿수로 둔화하였으나, 1~8월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5,605억 2천만 달러(약 770조 원) 흑자로 전년 동기대비 56.7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%)

구분	2021	'22.3월	'22.4월	'22.5월	'22.6월	'22.7월	'22.8월 (당월)	'22.1~8월 (누계)
수출	33,63 (29.9)	2,760.9 (14.7)	2,736.2 (3.9)	3,082.4 (16.9)	3,313.0 (17.9)	3,329.6 (18.0)	3,149.2 (7.1)	23,759.7 (13.5)
수입	26,865 (30.0)	2,287 (△0.1)	2,225 (0.0)	2,294.9 (4.1)	2,333.0 (1.0)	2,317.0 (2.3)	2,355.3 (0.3)	18,154.5 (4.6)
수지	6,769	473.9	511.2	787.5	980.0	1012.6	793.9	5,605.2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8월 수출입 총액은 5,504억 5천만 달러(약 757조 원)로 4.1% 증가했으며, 1월부터 8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9.5%, 13.5%, 4.6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가전제품을 제외한 9개 품목의 1~8월 누적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자동차(새시 포함), 강재 품목의 누적수출액은 각각 56.2%, 32.3% 증가
 - 8월 수출증가율 7.1% 수치는 지난 상반기 일부지역 봉쇄로 물류 차질이 심했던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, 높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침체가 악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
 - 한편, 8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6.5% 급증했으며 이는 여러 서방기업이 대러 경제 보복조치로 러시아 시장에서 이탈하자 중국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됨
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의 1~8월 누적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누적수입량은 동(銅)광석 및 정광을 제외한 9개 품목 모두 감소
 - 8월 석탄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에는 중국 일부지역 폭염 지속에 따른 에어컨 전력 수요 증가, 수력발전 제한 등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 가동률 증가 등이 있음
 - 중국의 부진한 수요로 호주, 브라질 등 천연 원자재 자원 생산국뿐만 아니라 독일, 한국과 같은 완제품 제조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
- 해관총서(海關總署)는 중국 대외무역 발전에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으나 장기적 펀더멘탈(Fundamental, 경제기초)은 견고하며 산업 공급망의 강점이 많아 향후에도 수출입 호조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
 - 업계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
 - 서부증권(西部証券)은 중국이 3분기에는 두 자릿수 수출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에는 한 자릿수로 감소할 가능성도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무역은 전력난, 태풍 등 외부영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플러스성장 추세를 이어감 - 중국 정부는 코로나 예방 통제와 경제성장 촉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종 정책 발표를 통해 대외무역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함 - 1~8월 일대일로 협력 국가와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0.2%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고, RCEP 14개 회원국과의 누적 무역액도 7.5% 증가 - 현재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 많으나 장기적 펀더멘탈 (Fundamental, 경제기초)은 견고하며 산업공급망 강점이 많아 무역 호조세 지속 전망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높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성장률이 둔화했으며, 이는 중국의 수출 안정성에 대한 여러 외적 압박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 - 기계 및 전자제품의 수출액의 1~8월 누적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8월만 놓고 보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, 주요 수출상품의 양적 성장도 전월 대비 현저히 낮음 - 느린 내수 회복은 수입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이며,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운스트림 소비재의 수입량이 감소함. 석탄, 구리를 제외한 원자재 수입량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있음을 나타냄 - 하반기에도 수출 하방 압력 증가가 예상되나 해외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국 수출상품이 가격우위를 가질 수 있어 이는 일정 부분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	 중신증권 (中信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미국,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중국 생산 우위를 가지는 일부 상품(정제유, 가공 알루미늄, 화학제품, 철강 등)은 향후에도 수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
	 서부증권 (西部证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조업 PMI 신규 수출수주지수를 통해 중국 향후 수출을 전망해보면 15개 제조업 중 11개 업종의 수출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- 3분기 수출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나, 연말로 갈수록 대외 수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4분기 수출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목별로 보면 석탄, 구리 수입이 강세를 보였고 8월 석탄 및 갈탄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5%, 수입액은 32.1% 증가. 최근 2개월 동안의 석탄 수입량은 작년 8월 이후 최대치로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 - 석탄 수입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중국 내 폭염이 지속되어 에어컨 전력 수요가 증가하였고, 수력발전 제한 등으로 8월 석탄 화력발전 가동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8월 수출증가세는 예상보다 둔화되었고 수입실적도 정체되었는데 이는 세계 경제 상황 악화, 반복되는 코로나 방역조치 및 부동산 침체로 인한 내수 성장 약화의 징후로 볼 수 있음 - 8월 수출증가율 7.1% 수치는 지난 상하이 지역 봉쇄로 선박운행 차질이 심했던 4월 이후 가장 낮으며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 수준보다 현저히 낮음 - 중국의 부진한 수요로 호주, 브라질 등 천연 원자재 자원 생산국뿐만 아니라 독일, 한국과 같은 완제품 제조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- 8월 중국의 대러 수출은 전년 대비 26.5% 급증했으며 이는 여러 서방기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이탈하자 중국업체가 시장점유율을 높여 수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됨 -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의 대만으로의 수출액은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감소 - 높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전망 악화로 올해 남은 기간동안 중국 수출입 무역은 많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
	 South China Morning Post SCM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러시아로부터의 8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59.3%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8월 대러 수출액도 26.5% 증가함 - 향후에도 세계경기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수출보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09.12)

3

1~8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미국(누계 수출증감률 12.2%) 및 EU(18.4%), ASEAN(19.4%), 중남미(20.1%), 아프리카(13.5%)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
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6.2%), 일본(6.6%)으로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11.9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4.8%) 수출액은 증가
 - 특히 1~8월 對네덜란드 수출액이 24.5%로 대폭 증가하였는데, 이는 네덜란드 인플레이션 지속 영향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
 - 수입의 경우, ASEAN(누계 수입증감률 5.8%), 중남미(6.5%)를 포함하여 대만(2.2%), 미국(1.3%)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EU(△6.2%), 일본(△7.5%), 호주(△13.7%), 브라질(△2.5%)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1~8월 수입액은 50.7% 대폭 증가. 對한국 누계 수입은 1.0% 증가하였으나 8월만 놓고 보면 8% 감소했으며, 對미국 8월 수입 또한 7% 감소

< 8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
1	*EU	513	18.4	*ASEAN	345	5.8
2	미국	498	12.2	*EU	261	△6.2
3	*ASEAN	494	19.4	*중남미	216	6.5
4	*중남미	248	20.1	대만	197	2.2
5	홍콩	221	△11.9	한국	170	1.0
6	일본	150	6.6	일본	154	△7.5
7	*아프리카	150	13.5	미국	130	1.3
8	한국	139	16.2	호주	125	△13.7
9	베트남	124	4.8	러시아	112	50.7
10	네덜란드	109	24.5	브라질	112	△2.5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주 : 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이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6%)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4.4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2.9%)의 1~8월 누적수출액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.8%, 11.6%, 10.2% 증가
 - 8월만 보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, 반도체 및 집적회로, 가전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4억 달러(△6.7%), 25억 달러(△17.2%), 15억 달러(△16.8%) 감소
 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0.4%)는 1~8월 기준으로 수량이 12.8% 감소했으나,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금액은 2.6% 증가. 2위 원유(비중

9.5%) 또한 누계 수량은 4.7% 감소했으나 누계수입액은 48.7% 증가

- 3위 철광석 및 정광은 누계 수량, 누계 금액 모두 각각 3.1%, 31.9% 감소하였으며 이는 철광석 원자재의 8월 평균 수입단가가 전년 동월대비 약 46% 급락하고 1~8월 평균 수입단가 역시 약 30% 하락한 영향이 반영됨. 철강·비철금속 원자재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 역시 하락한 것이 주 원인

< 8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96	2.8	4.6
2	의류 및 부자재	-	-	185	11.6	4.4
3	방직실 및 직물	-	-	125	10.2	2.9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17억 개	△9.9	118	8.7	2.8
5	강재	615만 톤	△3.9	97	32.3	2.3
6	플라스틱제품	-	-	90	14.4	2.1
7	휴대폰	6,771만 대	△10.5	90	3.9	2.1
8	자동차부품	-	△8.9	74	10.5	1.7
9	가전제품	28,077만 대	44.5	72	△8.6	1.7
10	자동차(새시 포함)	31만 대	12.4	61	56.2	1.4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< 8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8월 누계증감률	금액	1~8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49억 개	△12.8	332	2.6	10.4
2	원유	4,035만 톤	△4.7	305	48.7	9.5
3	철광석 및 정광	9,621만 톤	△3.1	108	△31.9	3.4
4	식량(곡류)	1,115만 톤	△9.9	68	12.3	2.1
5	천연가스	885 만 톤	△10.2	59	44.4	1.9
6	대두	717만 톤	△8.6	52	14.1	1.6
7	동광석 및 정광	227만 톤	9.0	49	10.5	1.5
8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8	△5.6	1.5
9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52만 톤	△12.9	47	△3.3	1.5
10	자동차(새시 포함)	8만 대	△12.3	45	0.8	1.4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8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 수치보다 소폭 증가한 49.4로 상승했으며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2.3%, 2.5% 상승함
 - 8월 PMI는 49.4로 2개월 연속 기준선(50)을 하회했으며 제조업 경기 위축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섬유제품 및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수요 회복이 더딤. 코로나19 봉쇄방역 조치,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,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위축 국면이 계속되고 있음
 - 8월 CPI(2.5%)는 5개월 연속 2%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과일·육류 등 식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. 8월 PPI(2.3%)는 지난달 4%대에서 2%대로 하락하였으며 주요 산업재 가격 하락세, 시장 수요 약세 등의 영향이 반영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분	2019	2020	2021	'22.상반기	7월	8월	
경제성장률(%)	6.0	2.2	8.1	2.5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8.0	△3.9	12.5	△0.7	2.7	5.4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5.1	2.9	4.9	6.1	5.7	5.8	
산업생산 증감률(%)	5.7	2.8	9.6	3.4	3.8	4.2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0.2	51.9	50.3	50.2	49.0	49.4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9	2.5	0.9	1.7	2.7	2.5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△0.3	△1.8	8.1	7.8	4.2	2.3	
실업률(기말, %)	5.2	5.2	5.1	5.7	5.4	5.1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381 (2.4)	1,444 (4.5)	1,735 (20.2)	1,124 (21.8)	175.7 (18.3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1,079	32,165	32,502	30,173	31,041	30,549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85	6.8974	6.4512	6.4810	6.7324	6.7949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출	1,362 (△16)	1,326 (△2.7)	1,629 (22.9)	814 (6.9)	132 (△2.5)	131 (△5.4)
	수입	1,072 (0.7)	1,089 (1.5)	1,386 (27.3)	772 (19.7)	138 (19.9)	135 (15.1)
	수지	290	237	243	42	△6.0	△3.8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8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